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침공이 한국안보에 미치는 영향

임종화  
성결대학교 파이데이아학부

## Effects of the Russia's Ukraine Invasion on the Korea National Security

Jong Wha Lim

Paideia Faculty, Syungkul University

**요약** 우크라이나는 1994년 12월 부다페스트양해각서를 통해서 국가의 주권과 영토보전 및 안전을 보장한다. 서명했던 러시아에 의해 크림반도의 침탈에 이어 2022년 2월 24일 제2의 무력침공을 받았다. 이 두 번째의 침공은 1년 2개월을 초과하는 장기전으로 가고 있다. 동(同)양해각서의 동반서명국인 미국을 향한 호소도 승산 없는 전쟁이 세계대전으로 확대될까 하는 우려로 효과가 없었다. 국가존폐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던 것은 젤렌스키 대통령을 위시한 전 국민들의 단결된 결사항전정신 때문이었다. 이 애국적 자조정신이 미국을 위시한 서방의 자유민주주의 세계와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게 하였고 그 강도는 날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 스스로를 지킨다는 자위(自衛)의지는 외부적 동맹이나 지원을 창출한다는 것을 보이고 있다. 우크라이나전쟁이 한국에게 주는 교훈은 미래전의 형태로 부각되는 하이브리드전략과 군사적 수단과 비군사적 수단에 대한 동시통합능력을 포괄하는 독자적 국방력의 발전과 자강(自強)의 의지 및 신뢰를 바탕으로 한 한미동맹 결속의 강화가 핵심이 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주제어** 부다페스트양해각서, 크림반도, 자위(自衛), 하이브리드 전략, 동맹결속

**Abstract** On the day of 24 February 2022, Ukraine was invaded by Russia which signed to ensure definitely the Ukraine's national sovereignty, territorial integrity and security under the UN General Assembly Security Council A/49/765, named as the Budapest Agreement. This invasion is the 2nd invasion succeeded in Crimean Peninsula invasion of March 2014 after the Ukraine's national independence in 1991 from the USSR. However this invasion has been continuing for much more than one year. Although Ukraine President appealed the 'peace' toward Russia and claimed also to justify the Budapest Agreement of 1994 toward U.S.A., even any justifications were not appealed. The critical moment of the national abolition could be escaped from the unified desperate spirit of all nations including the president, political-social leaders and military members. Such patriotic and self-help spirits in Ukraine resulted in the active supports from the U.S.A., western and eastern free democratic countries, NATO and EU, and even the neutral countries. Furthermore these supports are increasing much more day-after-day. The lessons which the Ukraine War offers to the Korean national security should be cored with the development of self-reliant national defense capabilities, self-strenuous efforts and unity strengthening of the Korean-U.S. Alliance with the deep confidence.

**Key Words** Budapest Agreement, Crimean Peninsula, self-defense, hybrid war strategy, alliance strengthening

Received 10 Jul 2023, Revised 14 Jul 2023

Accepted 21 Jul 2023

Corresponding Author: Jong Wha Lim

(SyungKul University)

Email: innovate3000@naver.com

ISSN: 2466-1139(Print)

ISSN: 2714-013X(Online)

© Industrial Promotion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 1. 서론

러시아는 2014년 크림반도의 기습점령에 이어 2022년 2월 24일 우크라이나의 북부, 북동부, 동부, 남부 등 4개 지역에 대한 동시다발적 공격을 감행했다. 러시아의 안전보장과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지역의 러시아계 주민 보호를 위한 ‘특수군사작전’이 명분이다. 국력, 병력 등 모든 면에서 비교가 되지 않는 약소국가에 대한 침공이어서 2-3일간의 단기전으로 종식될 것이라 예상했으나, 우크라이나 정부지도부와 국민들의 필사적 대응, 미국과 EU의 강력한 경제제재 및 NATO와 전세계의 각종 지원에 힘입어 장기화되고, 자유진영 서방과 러시아 간의 대리전 양상으로 번지는 듯하다.

전쟁양상은 하이브리드전술(hybrid tactics), 비선형동시통합작전, 비국가행위자의 관여 등 기존 전쟁양상과는 차별화를 보이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침공은 글로벌 안보환경의 근본적 변화를 의미하며, 우크라이나가 강대국에 둘러싸인 지정학적 취약성을 가지고 있는 점에서 한국의 안보전략수립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6].

본고는 국가에 힘의 비중을 극대화하기 위해 획득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모아 생존을 위한 실질적 선택을 해야 한다는 공격적 현실주의(offensive realism)이론 틀 안에서 우크라이나 사태의 역사적 배경과 침공전의 전개 및 그에 대한 평가분석을 하고 그것이 한국 안보전략 수립에 미치는 함의와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7].

## 2. 예고되고 계획된 러시아의 침공

### 2.1 블링컨 미 국무장관의 UN안보리 연설

2022년 2월17일 UN안보리 의장국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계 주민을 탄압하는 전쟁범죄가 일어나고 있다”며 소집한 뉴욕UN본부 안보리 회의장에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예고 없이 나타났다. ‘러시아가 안보리를 우크라이나침공을 정당화하는 선전장으로 만들려한다’는 보고를 받은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블링컨 장관을 뉴욕으로 급파한 것이다. 생중계된 10분간의 연설에서 블링컨 장관은 ‘러시아가 수일 내 우크라이나공격을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미 정보당국의 판단에 근거, 러시아가 지어낼 만한 ‘공격구실들’을 나열했다.

블링컨은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테러리스트가 러시아

영토 내에서 폭탄을 터뜨렸다’, ‘러시아계 주민의 시체무덤이 발견됐다’거나, ‘우크라이나가 먼저 화학무기를 사용했다’며 인종청소와 대학살이라 부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블링컨 장관은 “러시아 정부는 연극을 하듯 비상회의를 소집해 ‘우크라이나 내 자국민보호를 위해 대응한다’고 연출할 것”이라고 했다[3]. “러시아 미사일과 폭탄이 우크라이나 전역에 떨어지고, 통신이 마비되고, 핵심정부기관은 사이버공격을 당할 것이며, 러시아 탱크와 군인이 수도 키이우를 포함, 지도에 표기된 핵심목표를 향할 것”이라 했다. 블링컨은 “조건 달지 말고, 얼버무리지 말고, 왜곡하지 말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지 않겠다고 발표하라”며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에게 다음주 유럽에서 만날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뉴욕타임스는 이러한 블링컨의 연설에 대해 “미국 정보력의 훼손, 과장과 공포조장이란 비난까지 모든 것을 내걸고 외교전에 나선 것”이라 분석했다.

### 2.2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대국민연설과 3단계 계획

2022년 2월21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대통령은 대국민연설에서 “우크라이나는 항상 러시아의 일부였다”면서 NATO의 확장(소위 NATO의 동진(東進))을 규탄하고, 돈바스지역에 대한 우크라이나 인종차별과 적대행위를 비판했다. 또한 도네츠크와 루한스크 자치구 임시수장을 불러들여 러시아와 돈바스간의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에 대한 협정’을 체결하여 돈바스에 대한 러시아 평화유지군 관여를 명문화했다. 푸틴 대통령은 돈바스에 대한 군사적 관여를 단행한 이후에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적 침공가능성을 부인하는 ‘기만전술’을 활용했다.

2월24일 새벽 푸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에서 밝힌 ‘특별군사작전’의 이유와 취지는 NATO의 확장에 따르는 비례적 대응, 우크라이나의 민스크협정위반 그리고 (동부 돈바스지역의)자국민보호로 요약된다. 이를 기초로 러시아 공격군의 군사적 과업은 서방의 위협으로부터의 국가방어, 돈바스지역의 자국민보호, 우크라이나의 비무장화 및 탈나치화라고 규정했다. 이 경우 비무장화는 우크라이나 NATO가입 무력화와 무장해제를 포함한 우크라이나의 중립국화를 포괄한다.

### 2.3 푸틴의 3단계 전략계획

1991년 구소련의 붕괴와 분리(USSR에서 CIS로)과정에서 독립을 찾은 우크라이나 정치적 상황은 친러정권에 서 친서방정권의 집권가능성이 높아지고 EU 및 NATO 가입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우크라이나 남부 크림반도는 러시아의 흑해함대가 주둔하는 전략요충지였다. 우크라이나의 NATO가입은 러시아에게는 흑해함대의 철수와 지중해와 중동지역에 대한 해상교통로 상실을 뜻한다. 2014년 3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분리주의 내전 혼란상황을 틈타, 군사적 관여를 통해서 크림 공화국과 세바스토폴 특별시를 병합하여 흑해함대를 보존했다.

한편 동부 도네츠크와 루한스크 일부지역이 독립을 선언하면서 돈바스는 친러분리주의 내전지역이 되고, 정부군과 반정부간의 교전이 지속되었다[4]. 이 해결을 위한 것이 민스크협정이었으나 돈바스 내전사태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군사적으로 관여하면서 민스크협정의 무용론이 제기되어 왔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하이브리드전술로 돈바스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비판하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서방의 지원을 업고 러시아에 주민에 대해 무차별적 인종차별을 가하는 등 민스크협정 원칙을 위반한다는 입장이다. 러시아는 2014년의 우크라이나사태를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2021년 국가안보전략서에 서구식 민주주의 가치를 확산시키고 러시아의 전통적 가치와 CIS(독립국가연합) 연대감을 훼손하는 국가전복 시도라 했다.

한편 미국과 NATO 등 서방은 2014년 러시아의 크림 강제병합이후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지원을 통해 초보적 수준의 연합방위조약을 이행해 왔다. 우크라이나 헌법상 외국군주둔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미국과 NATO는 우크라이나에 교관파견, 무기지원 및 군사기지 건설 등 간접전략을 통해 우크라이나 자위력개선을 지원했다. 이 과정에서 우크라이나, 흑해 및 발틱 등 러시아 인접국경 지역에서 NATO차원의 연합훈련이 강화됐다. 러시아는 이를 자국에 대한 위협이자 도발로 인식하면서 군사적 긴장이 축적되어 왔다[5].

2021년 3월 돈바스지역의 정부군과 친러시아 성향의 반정부군간의 교전으로 인해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갈등은 증폭되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인접한 서부 및 남부군관구 일부병력과 장비를 국경지역에 주둔시켜 돈바스지역 상황악화에 대비

했다.

미국과 서방측은 국경지역에 배치된 러시아군의 주둔 목적을 우크라이나침공을 위한 의도로 평가하고, 2021년 10월부터 흑해일대에서 非계획수시연합훈련을 실시했다. 푸틴대통령은 이를 러시아에 대한 엄중한 도전으로 평가하고 외무부는 ‘도발’로 규정했다. 우크라이나와 인접한 남부 및 서부군관부 일대에 러시아병력이 집결하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침공우려가 확산되기 시작했다.

요컨대 푸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략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종주권 절대불포기(不拋棄)가 본래의도이고, 그 배경에는 (1)동유럽과 중앙아시아를 아우르는 구(舊)소련지역의 패권을 복원하고 (2)이를 기반으로 영향력의 외연을 타 지역으로 확대하여 (3)중국에는 과거 구 소련에 버금가는 ‘수퍼파워(초강대국)’로 복귀한다는 3단계 계획이 내재되어 있다[9].

## 3. 우크라이나 침공전(戰) 수행과정과 평가

### 3.1 우크라이나 침공전 수행과정

2022년 2월 24일 새벽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 공격명령을 내리면서 “어떤 형태의 유혈사태에 대한 책임은 우크라이나 정부가 져야한다. 방해에 대한 대응은 아주 신속할 것”이라 하면서, 군사작전 목적은 지난 크림병합 이후 8년간 키예프정권에 의한 처형과 대학살에 고통받은 돈바스지역 러시아계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점령할 계획은 없다”라고 했다. 이와 동시에 2021년 가을부터 우크라이나 동·남·북, 북동부 등 4개 축선을 둘러싸고 있던 러시아의 19만 대군이 푸틴 대통령의 ‘특별군사작전’ 선포와 동시에 동시다발적 침략을 단행했다. 러시아의 전쟁운영은 침공이전단계에서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비군사적 수단을 이용하여 정치·외교적 영향력을 행사했고, 에너지를 무기화한 경제적 압박과 정보전, 기만전술 등을 배합했으며, 분쟁 해결을 위해 무력을 동원하였다.

서방은 러시아의 전쟁수행양상을 하이브리드전쟁이라 명명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서방은 러시아의 전쟁전개를 통해 우크라이나군은 조기에 무력화될 것이고 러시아군은 확고한 공중우세를 통해 전장주도권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했다. 러시아 역시 개전 이후 최소 2-3일, 최대 4-5일 이내의 속결전의 승리를 자신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사태는 2년째 접어들면서도 결과가 보이지 않는 장기화로 가고 있다. 현실적으로 러시아가 이 같은 소모적 장기전을 벌여야 한다면 그 자체로 일단은 푸틴 대통령의 전장지배 실패와 작전계획의 근본적 실패를 의미한다.

## 3.2 러시아 침공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대응

### 3.2.1 우크라이나의 정체성 변화와 반(反)러감정 강화

2014년 3월 러시아에 의한 크림반도 점령이후 우크라이나에는 러시아에 대한 적대적 정체성과 주권과 영토보호를 위한 민족적 자각의식이 발현되기 시작했다. 이 변화된 국가정체성은 NATO 및 EU가입을 가속화한다는 국가전략(national strategy)으로 발전했고, 2019년 2월 헌법으로 제도화하였다. 이를 위해 우크라이나는 국방개혁을 추진했고, 그 핵심은 NATO와의 상호운용성 기반 구축으로, 총참모부 편성을 NATO식으로 변경하며 서방으로부터 대전차 미사일 및 방공무기 등 주요장비를 우선 확보하여 러시아위협에 대비했다.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우크라이나군이 NATO와 실시한 각급 연합훈련 및 교류협력은 200회가 넘는다. 푸틴 대통령은 2021년 1년 동안 미군과 NATO군 2만 3천여 명의 장병과 1천여 점의 장비가 우크라이나 영토에 전개되었다고 했다.

### 3.2.2 전쟁의 장기화와 그의 인과(因果)

우크라이나전쟁의 장기화 요인은 외부적 요인보다 러시아 내부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무엇보다 푸틴대통령을 비롯한 러시아 수뇌부들의 판단오인(misperception)을 들 수 있다. 이는 러시아가 크림병합 이후 초래된 우크라이나 저변의 국민민심의 변화를 제대로 간파하지 못하고 우크라이나의 전쟁수행능력을 과소평가했음을 의미한다.

러시아 남성의 평균수명이 68세인 점을 감안할 때 군사 주요 직위자의 장기보직은 급변하는 전장상황 속도를 이겨내지 못하고 통합전투력 발휘에 제한사항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한 마디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단기속도전을 전제로 한 잘못된 전쟁기획과 정치지도자의 과도한 자신과 오인, 지휘통제 면에서 러시아 군주요 지휘관들에 대한 세대교체의 실패가 장기화 요인을 제

공했다 할 수 있다[11].

또한, 푸틴은 우크라이나전에 대한 서방의 결집력을 과소평가했고 그의 국제적 확산을 예상하지 못했다. 러시아군이 키이우의 방송수신탑을 타격하자 젤렌스키 대통령은 테슬라가 제공하는 SNS를 활용해 결사항전의지를 국민들에게 송출했다. 국제해킹단체 어나니머스는 러시아 국방부에 대한 사이버공격을 감행하고, 국영방송사를 해킹하여 우크라이나 참상을 전 세계에 송출했다.

이러한 젤렌스키 대통령의 전략적 커뮤니케이션(Strategic Communication: SC)은 동서로 분리된 국론을 단시간 내 결집시켰고, 국제사회에 반전여론을 확산하는데 결정적 효과를 창출했다. 평화와 문명을 존중하는 '가치연대'는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국제의용군의 자발적 결성으로 이어졌다. 미국과 유럽국가 등 20여 개 국은 러시아의 국제결제망 퇴출, 푸틴을 비롯한 러시아 권력층인사들에 대한 강력한 금융제재단행 조치에 이어 대전차 미사일과 전투기, 레이더, 대전차무기, 총기 등을 비롯하여 하푼미사일과 다연장 로켓발사시스템(MLRS) 등 공격용군수지원을 단행했고 이것은 러시아가 예상치 못한 상황이다.

전쟁 장기화 세 번째 요인은 휴전협상의 실패와 서방과 반(反)서방, 자유민주주의와 권위주의 진영 간의 편 가르기와 관여자 증대에서 파생되는 '신냉전' 양상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의 지원은 더욱 강화되었다. 영국은 우크라이나에 열화우라늄탄을 지원하고 미국은 NATO동부 최전선 폴란드 포즈난에 영구주둔지를 열어 우크라이나 지원토로를 확고히 하고, IMF는 우크라이나와 156억 달러(약 20조 4064억원)규모의 대출협정에 합의했다.

2차대전 이후 분쟁지역에 자국산 무기를 보내지 않는 원칙을 엄격 관리감독하던 독일도 군축폐기 선언을 하면서 35억 7천만 달러어치의 무기지원을 했고, 외국인 의용군은 2만 명을 상회했다. 강화되는 제재에 푸틴대통령은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을 모스크바로 초청, "중국과 러시아의 정치적 상호신뢰는 끊임없이 깊어졌으며 요동치고 변화하는 세계에서 중국은 러시아와 함께할 것"이라는 전략적 연합구축을 통하여 러시아의 고립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과시했다[2]. 중-러 수뇌회담 당일, 일본의 기시다 총리는 우크라이나를 방문, 젤렌스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5억 달러(약 6천 5백억 원)지원을 약속했다.

이와 같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간의 전쟁은 서방 대 반(反)서방,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진영 대결이 편승되어 협상도 결판도 쉽지 않은 장기전으로 가고 있다.

### 3.3. 우크라이나전쟁의 특징과 전망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공격적 현실주의(offensive realism)가 실현될 수 있다는 경험적 근거를 제공하는 나쁜 사례가 될 수 있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러시아의 침략행위는 탈냉전이후 국제사회가 합의해 온 실질적 평화론을 부정하는 사건이고, ‘부다페스트 양해각서’의 백지화를 의미한다. 러시아의 행위는 단순히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배권을 강화하는 수준을 넘는다. 러시아의 행위가 군사력을 동원하여 G3 위상을 단번에 획득하기 위한 ‘힘에 의한 현상변경 시도’라는 점에서 향후 글로벌 안보환경의 지각변동은 불가피하다[10].

우크라이나 전쟁은 하이브리드 전술이 시민과 각종 언론에 실시간 공유되었다. 따라서 재래식 전쟁수단 뿐 아니라 외교전, 심리전, 여론전, 허위정보유포와 기만전술, SNS전, 사이버전, 정보전 등 다양한 비군사적 수단이 동원되었다. 우크라이나도 하이브리드전을 잘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의 침공직후부터 실시간영상을 통하여 키이우에 잔류함을 보여주며, 결사항전의 의지를 국내외의 민간인과 주요국가기관에 송출했다. SNS는 외교, 심리, 정보전의 주요수단이라는 것을 보였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리더십은 우크라이나 국민의 단결로 이어져 러시아군의 진출을 막기도 했다.

## 4. 우크라이나전쟁이 한국안보에 주는 함의

### 4.1. 정치지도자의 리더십과 국민의지의 중요성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침공명령 직전까지 “우리의 주된 목표는 우크라이나의 평화와 우크라이나인의 안전이다. 러시아는 전쟁을 원하는가? 답변을 듣고 싶다”고 호소했지만 최악의 결과를 초래했다. 러시아 침공직후 우크라이나는 ‘부다페스트 양해각서’를 근거로 UN안보리에 긴급회의를 요구했지만 러시아가 회장국가인 UN 안보리의 긴급회의는 무시되었다.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폭스뉴스에 출연해 1994년의 핵 포기 결정은 현명한 판단이 아니었다면서 미국에 대해 당시 약속한 안전보장을 이행하라 촉구했지만 허사였다.

러시아의 침공이 발생하자 우크라이나는 즉각적인 계엄령 선포와 동원령 발령을 필두로 결사항전으로 버티고 있다. 강대국 러시아의 무력침공에 응전하는 우크라이나를 보면서 정치지도자의 신념과 리더십 및 국민의지가 국가위기를 구할 수 있는 제1의 요건임을 보이고 있다[1].

### 4.2. 동맹 결성의 중요성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의 희망이 좀 더 조기에 이루어졌거나, 강대국을 동맹으로 두고 있었다면, 러시아의 침공이 가능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특정 국가에 대한 군사공격은 회원국 전체에 대한 침공으로 간주하고 개별 회원국 또는 집단으로 즉각대응한다”는 것이 동맹의 핵심이다. 대한민국은 1950년 북한의 침공을 받았을 때 미국을 포함한 16국의 도움으로 국가를 구할 수 있었다. 우크라이나는 NATO 회원국가가 아니기에 NATO가 직접 군사행동으로 대응하지 못했다. 우크라이나전쟁은 국가가 전쟁위기에 처했을 때 동맹국 결속의 유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7].

### 4.3. 미래전 대비의 중요성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침공으로 글로벌 안보지형은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진영대결구도를 선명히 보이고 있고, 동조세력을 확대하기 위한 강대국들의 외교적, 군사적, 경제적 공세가 경쟁적으로 번지고 있다. 우선 중국과 러시아는 전략적 연합수준을 끌어올리면서 미국과 서방에 대응하고 있다. 2023년 3월 2일 UN긴급특별총회에서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고 즉각 철군을 요구하는 결의안 채택에 북한은 러시아와 함께 반대표를 던진 5개 국가 중 하나다. 이에 러시아의 북한 두둔 가능성이 커지고, 러시아가 보여주는 공격적 현실주의는 북한에게 학습효과로 작용할 수 있다.

한국은 북한의 비핵화는 쉽지 않다는 전제하에 대(對)북한 비핵화정책을 ‘공포의 균형’차원에서 근본적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한국에게는 미래전 양상에 부합하는 군사력을 건설하고 나가는 중장기적 로드맵 마련이 시급하다. 여기에는 미래전 수행개념으로 부상하는 하이브리드 전술 및 작전의 선협국가 사례분석을 통해 전평시(戰平時) 한반도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유비무환적 고려가 수반되어야 한다[5].

## 5. 결 론

우크라이나가 국가존폐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던 것은 젤렌스키 대통령을 위시한 국민들의 일치단결된 결사항전 정신이었다. 이 애국적 자조(自助)정신이 미국을 위시한 서방자유세계와 국제사회로부터 지원을 이끌어 내고 그 강도는 더욱 증대되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2023년 2월 24일 기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 국가는 28개국이고, 금액으로 684억 9천만 달러(약 90조 원)에 달한다. 스스로를 지키겠다는 자위(自衛)의지가 없다면 국가의 안보도 동맹결속도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뿐 아니라 외부의 지원도 기대할 수 없음을 우크라이나 전쟁은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국에게 주는 교훈은 독자적 국방력 발전과 자강(自強)의 의지 및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한미동맹의 결속력 강화가 핵심이다. 국익의 차원에서 자강(自強)과 동맹(同盟)을 조화롭게 유지하고 발전시켜나가는 지혜와 용기가 필요하다.

## References

- [1] 두진호, “우크라이나 사태 교훈분석(1)(2), 參 參 군사포럼 제91호 및 92호(2022년 봄 및 여름호).
- [2] 배진영, “강대국 러브콜은 언제든 압박으로 바뀔 수 있다”, 月刊 朝鮮, 2022. 4. pp.358-377.
- [3] 이재승, “우크라이나 중립화 해법 ‘동상이몽’”, 조선일보 유로스코프 (2022.4.18.A33).
- [4] 정철환, “푸틴의 전략과 국제정치”, 조선일보, 2022.2.17.A30.
- [5] 황지훈,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 본 ‘전략적 소통’의 중요성과 발전방향”, 參 參 군사포럼, 제92호,
- [6] Hoffman, Frank, G., Conflict in the 21st Century; The Rise of the Hybrid Wars. 2007
- [7] Mearsheimer, John, G., The Tragedy of Great Power Politics (W.W. Horton & Company, Inc., 2014).
- [8] Nye, Joseph S.Jr., Understanding International Conflicts: An Introduction to Theory and history (New York:Longman,2007).
- [9] Nye, Joseph S. Jr., Is the American Century Over?

(Polity Press Ltd., Cambridge, 2015))

- [10] U.S. - Ukraine Charter on the Strategic Partnership, 2021.11.
- [11] Zbigniew Brezinski 지음, 김명섭 옮김. 해제, 거대한 체스판: 21세기 미국의 세계전략과 유라시아 (삼인, 2017). pp.117-120.

## 임 종 화(Lim Jong Wha)



- 2023년 3월~현재: 성결대학교 파이 데이아학부 외래교수
- 2019년 9월~현재: 청운대학교 중국 지역학과 연구교수
- 2014년 8월: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국제정치학 박사
- 2009년 12월: 영국 University of Bradford (국제정치학석사)
- 2006년 6월: 미국 University of Akron (경영학석사(MBA))
- 2004년 3월: 인하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 관심분야: 국제정치경제사, 세계안보분야, 유럽 문화 역사
- E-Mail: innovate3000@naver.com